

## 定期理事会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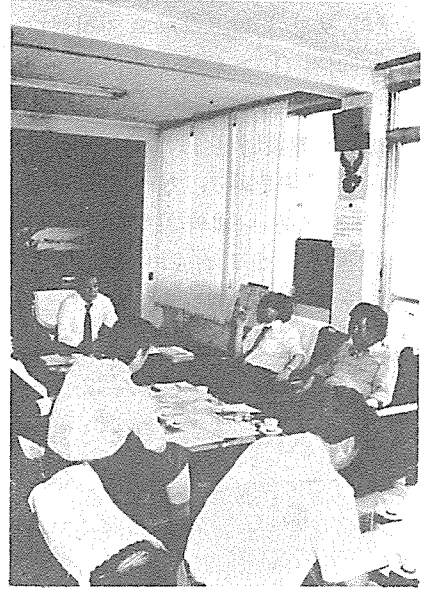
열세번째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23일 본 회의실에서 具琬會 회장을 비롯한 理事 全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具會長의 개회사에 이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2년도 본회 살림규모를 확정짓는 사업계획안 및 수지에산안 확정건의를 비롯해서 본회가 현실에 맞게 개정 작업을 마친 정관 및 제규정 개정

안 확정건의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회원중 65세이상의 회원에게 부여되는 추대회원 추대의 건이 상정돼 서울支部소속의 이도승회원을 비롯한 11명의 회원이 추대회원으로 추대되었다.

그밖에 직원 표창장과 總會 議題 결정건의 등이 논의되었다.



## 제4회 支部長회의 개최

제 4회 支部長회의가 지난달 18일 오후 2시에 본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琬會 회장 주최로 개최된 이날 支部長회의에는 各 市道 支部長이 전원 참석해서 주요 업무보고 및 협의사항등을 논의했다.

주요 업무보고에는 弘報 활동사항을 비롯해서 대만 건축사일행의 본회 방문, 3단체장 조찬회 개최, 건축관계 법령집 가제분 발송건등이 보고되었다.

그밖에 會員技術向上을 위한 教育실시건과 本部 및 서울支部 任員 연석회의 내용, 忠北支部 會員과의 간담회, 會員福祉年金제도연구 등 모두 27건의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

협의사항으로는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비롯해서 82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에산안등이 협의되었으며 그밖에 복지연금 조성 방안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 住宅庁및建築研究所 新設 建議

### 3 단체 월례 조찬회서 합의

건축 3단체 월례 조찬회가 지난 6일 본회 주관으로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있었다.

본회 具琬會 회장을 비롯해서 각 단체장 및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조찬회에서는 88년도 올림픽 유치에 따른 건축계의 동향과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과 그

밖에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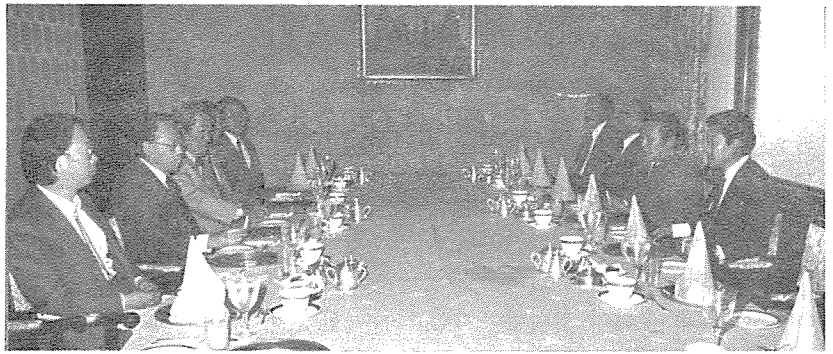
특히 당면한 國政의 중대과업인 住宅建設의 목표달성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역사적인 올림픽 경기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발전적인 견지에서 政府 건축부서의 보강을 위한 건축 3단체 공동

명의를 건의서를 당국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건의 취지는 ① 각국이 주택건축 및 도시에 관한 업무 전담기구로서 住宅都市部를 두고 있으며 ② 건축은 技術과 文化의 根幹으로서 社會性을 띠고있기 때문에 종사인구가 많고 활동이 활발해서 고급기술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전담기구의 보강이 필요하고 ③ 더우기 올림픽경기 유치에 따른 각종 시설이 건축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한국의 건축문화를 세

계에 선보이는 기회가 되므로 기구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① 건설부내에 건축행정과 건축기술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최소한 建設局만이라도 설치할 것과 ② 건축문화 및 건축기술에 종사하는 모든 단체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育成되도록 협조해 줄것을 건의했다.



## 大邱 建築士 복지회관 기공식 경북支部 조기청소실시

大邱支部 건축사 복지회관 기공식이 지난달 23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현장에서 많은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대구지역 건축사들의 요람이 될 복지회관은 대지면적 8백30여 평방미터에 연면적 총 2천여평방미터 규모로 지어진다.

오는 82년 6월15일경에 준공에

정인 본 회관설계는 현대 건축의 김무권회원이 맡았다.

한편 경북지부회원들은 매월 1일을 조기청소의 날로 정하고 깨끗하거리 가꾸기에 솔선키로했다. 지난 9월 1일에는 대구 일신학원 앞에서 회원 및 직원20여명이 조기청소를 실시했다.



## 報酬基準研究小委 열려



3차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연구소위원회(위원장 安箕泰)가 지난달 28일 개최되었다.

보수기준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위해 열린 이날 小委員會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1·2차 改正案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서 常駐監理時 건축사보에 대한 經費策定문제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아울러 設計監理보수율표 가운데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種別再調整등이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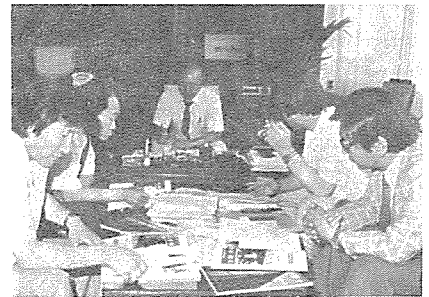
## 10회 편찬위 열어

제10회 편찬위원회(위원장 金正澈)가 지난달 28일 본회회의실에서 편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지 9월호 合評을 비롯해서 10월호 發刊에 따른 편찬내용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는 본지의 보다 발전적인 발간을 위한 현행 문제점 제기와 이에 따른 대책등이 폭넓게 숙의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住宅특점으로 色度化한 9월호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적사항으로는 ① 사진상태가 좋지않고 ② 인쇄선명도 부족하며 ③ 오자 및 탈자등을 들었다.

한편 10월호 기본편찬 계획으로는 ① 연구 논문을 줄이고 ② 회원업무에 도움이 되는 논문을 게



재하며 ③ 편집을 새롭게해서 발간키로 했다. 아울러 9월호와 같이 會誌의 色度化방안을 연구해서 보다 새로운 회지로의 발돋움을 시도할것을 촉구했다.

## 協會大賞審査委

지난 1년간(80년 10월~81년 9월까지) 본지에 게재된 會員設計作品 및 研究論文을 대상으로 協會大賞作品을 가리는 協會大賞審査委員會(위원장 具琬會)가 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學界 및 斯界 권위자들로 구성된 8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이

날 1차회의에서는 施賞 및 審査基準에 대한 확정과 1차심사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번 大賞 후보 設計作品은 모두 97개 作品이며 論文은 총 70여

## 淨化推進委員會 개최



9차 정화추진위원회 및 3·4분기 중앙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具玆會委員長 주재로 열린 이날 정화추진위원회에는 20여명의 위원이 참석, 그동안의 정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새로 제정된 社會淨化 國民運動 推進委員會 設置 및 運營規程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금년도 정화운동 추진계획중 보완 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회원 및 임직원 풍토채신을 위한 특별감사활동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한편 정화운동과 관련된 비위회원에 대한 조치로 적발된 비위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화운동의 활성화와 생활화를 위해 결의문안을 채택해서 적극적인 실천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우리 건축사실동은 건축행정부조리 척결에 선봉이 되자.

□ 둘째 : 회원의 정신자세 확립으로 정화운동과 청탁배격에 솔선수범하자.

□ 셋째 : 우리 건축사실동은 건전사회 육성에 역군으로서 솔선수범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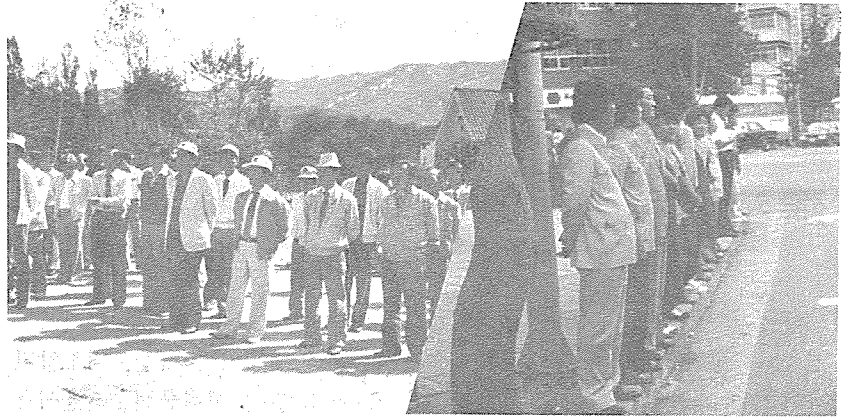
점으로 우선 각 심사위원이 1점씩 작품을 선정해서 이를 취합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을 大賞으로 가리기로 했다.

한편 본회는 會員設計作品에 대

한 展示會를 본회 전시실에서 15일부터 개최한다.

이번에 展示될 作品은 모두 45명의 會員이 出品한 1백여점의 판넬 및 모형이 선을 보이게 된다.

## 支部別 淨化運動 활발



淨化運動의 생활화를 위한 支部別 活動 상황이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중 본회 산하 市道支部別로 벌인 정화추진사항을 보면, 서울支部는 지난달 25일 회원간의 단합을 통한 동운동의 활성을 위해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겸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보다 앞서 10일에는 동支部 사무국장이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상담을 통해

일반시민과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 상담회수는 총 6백81건으로 집계되었다.

부산支部도 태풍피해로 인한 이재민 돕기운동을 전개해서 회원들로부터 답지한 1백22만원의 성금을 부산시에 기탁했으며 정화추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핵심위원 선발과 회원진정건에 대한 정화위원의 조사등을 실시했다.

강원도支部는 허례허식추방, 불량제품고발, 명량한 직장분위 조성, 질서관념의 체질화, 분수지키기, 봉사자세확립을 통한 정화운동의 심화를 꾀했으며 불우이웃돕

기로 20여만원을 모아 전달한데 이어 수재민 돕기로 34만 4천원을 내놓았다.

충남支部의 경우는 일부회원의 물의를 조사해서 정화소위원회에서 경고키로 했으며 질서 이념의 체질화와 자체교육을 통해 정화이념을 고취시켰다.

전북支部도 건전한 국민정신과 사회기강확립을 위한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정화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전북대학교 장명수 김귀달교수를 초빙, 정화운동과 우리의 자세

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전남支部는 자율정화결의 대회 및 회원정화교육을 지난 8일 실시하고 동 운동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는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支部 회의실에서 2시간 30분에 걸쳐 실시 되었으며 결의문 채택도 있었다.

특히 대회가 끝난 자리에서 태풍으로 인한 수재민을위한 즉석모금으로 51만 2천원을 모아 관제처에 기탁하기도 했고, 수재민 복구

주택에 대한 설계비 전액을 무료로 봉사하기로 결의했다.

경북支部도 질서관념의 체질화와 불우이웃돕기 회원 정신교육 등을 통해 동운동의 적극화에 힘썼으며 경남支部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과 대민봉사 및 기강확립 등으로 동운동을 다졌다.

제주支部에서는 보수요율지키기를 통한 덤핑 방지, 회원정화교육, 봉사정신 발휘하기, 부당한압력·청탁배격·기강확립등을 펴 정화운동의 심층화에 주력했다.

## 建築界뉴스

### 건축가 축제가져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81 건축가축제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에서 열렸다.

문공부를 비롯한 보사부 문화예술진흥원 예총 건축학회 건축사협회등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등의후원으로 막을 올린 이번 행사에는 作家展을 비롯해서 집합주택전등이 있었으며 강연 및 토론과 협회 시상등이 있었다.

### 屋上美觀심의 모든 새건물에 적용

앞으로 서울시내에 세워지는 모든건축물은 옥상부분에 대한 미관심의를 통해야한다. 서울시는 이제까지 지상에서의 건물가시권, 즉 전면과 측면의 미관에 대해 규제해 왔으나 88년 올림픽 서울유치를 계기로 공중에서의 경관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건축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현재 건설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옥상면적이 넓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는등 조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 建築不況으로 市財政압박

건축경기가 2년가까이 침체됨에 따라 서울시가 심한 재정압박을 받고있다, 이때문에 서울시는 금년 추경에 일체의 신규사업계획하지 못하고 유류대 인건비등의 인상에 따른 유지관리비중액과 잠수교 2층공사에 따른 자재구입비등 불가피한 지출세목만을 정해놓고 있다.

서울시는 추경세입을 예산 절감으로 남은 50억원, 과년도채납세입 85억원, 재산매각등 3백억규모로 잡고 있으나, 세출부문을 보면 유류대 및 인건비상승 1백20억원, 잠수교 2층공사 자재구입비 70억원, 제 1한강교 및 상도터널 공사비중액 20억원, 전국체전준비금15억원등 굵직한 세목만도 2백5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이처럼 재정압박에 시달리게된것은 금년 일반회계에서 5백84억원을 지하철 2호선건설에 투입한데다 2년가까이 건설경기가 침체, 취득세및 등록세 수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때문이다.

8월말 현재 취득세징수액은 3백16억원으로 작년같은 기간 3백15억원에 비해 불과 1억원이 늘

어났을 뿐이고 등록세는 작년 8월 현재 3백60억원 보다 90여억원이 많은 4백54억원이었다. 등록세 부문에서 90여억원이 늘어난 것은 롯데 두산 한일 빌딩등 10억원이상 등록금을 낸 대형건물이등록했기 때문이어서 이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물가상승률에 불과한 25%정도가 늘어난것이다.

서울시 당국자는 『8월말 현재 건축허가건수가 2만 4천 6백15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87%선으로 처져 내년도 세입도 어둡다.』고 전망하고 『내년 예산도 정부예산 증가폭 22%선보다 낮은 18%선에그치지않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내년에도 지하철 2호선 건설비와 3 - 4호선보상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신규사업은 극히 제한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일반호텔 新設허용 88올림픽 대비해서

서울시는 숙박업소의 종류에 일반호텔을 신설, 이날부터허가를내주기로 하는 한편 여관 丙 등급은 폐지키로 했다.

이는 숙박업소의 질을 높이고대규모화 하기위한것인데 신설된업종

인 일반호텔과 여관 甲·乙은 오는 88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의 수용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호텔은 관광사업법에 따른 객실 40개 이상이면 甲, 30개 이상이면 乙호텔로 허가가 나간다.

일반호텔은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서 폭12m 이상의 도로변등지에 신축할 수 있고 객실요금은 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일반호텔은 방의구조를 양식(9㎡ 이상), 한식(7㎡ 이상)으로 나누고 각 방마다 수세식 변기 및 냉·온수도전을 설비한 욕실, 적당한면적의 현관과 로비시설을 갖추도록했다.

서울시는 특히 기존여관에 대해서도 조건부호텔허가를 내주고 1년내에 시설을 완비토록할 방침(1차에 한해 3개월연장)으로 있어 앞으로 일반호텔이 대폭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 建設業면허 계속 제한키로

건설부는 건설업신규면허발급에 대한 제한을 다소완화, 현행처럼 계속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성있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각종 면허발급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건설업면허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국내에서 발주되는工事量과 기술人力, 장비등에 한계가 있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아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신규면허는 계속 제한키로 한것이다.

현재 전국의 건설업체(면허소지자)수는 5백 8개에 이르고있지만 30% 이상이 심한 자금난으로 도산 직전상태에 있고 건설업체가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려면年間 17억원

이상의工事物量을 맡아야하는데 올들어工事受注실적이 17억원이상인 업체는 1백36개社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신규면허는 발급이 사실상 중단되지있어 재무구조가 나쁜不實業体라도 면허자체에 프리미엄이 2~3억원이상 붙어 거래되고 있으며市道에서 발급하는單種면허도 2~3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을 주어야 살수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올림픽投資축소조정

서울시는 오는 88년도 올림픽개최를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하지않는다는 방침 아래 당초계획했던 경기장시설과 선수촌건립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오는88년에 개최될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과도한 지출을 피하고 가급적 기존시설을 확충보완해서 알뜰한 경기운영효과를 올리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江東구 둔촌동 80여만평위에 건립할 예정인 국립경기장내 보조 경기장들의 규모 및 시설내용을 일부축소하고 선수촌의 건립도 가급적출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선수촌의 건립을 억제하고 그대신 각대학기숙사에 자금을 지원, 올림픽 참가선수과 임원들이 묵을 수 있도록 기숙사시설을 확충, 개선해 나가고 국립경기장의 보조경기장건립을 대폭 취소, 승마장과 자전거 경기장만 건립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IOC에 제출한 경비소요액중 직접투자비로 책정한 6억달러를 절대 초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市廳舍의江南구 瑞草동 이전 계획도 올림픽이후로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 首都圈內 골재 品貴예상

首都圈地域에 供給할 수 있는京畿道內的 骨材埋藏量이 앞으로 10餘年안에 完全히 바닥날 것으로보여져 이에 대한 對策이 時急한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京畿도에 의하면 지난 78년부터 서울등 首都圈地域에 骨材를 供給해온 京畿道 廣州군 東部면 消沙里漢江邊一帶의 採取可能 殘存骨材量은 이날現在 1천300만m<sup>3</sup>에 不過, 오는 82년 下半期중에는 바닥이 나게된다는 것이다.

그 以後부터는 京畿道 驪州군驪州읍 羊島의 漢江邊一帶와 波州군 汶山읍 草坪島 臨津江周邊의 骨材를 採取, 首都圈에 供給할 豫定이나 이곳의 埋藏量 1억6천만m<sup>3</sup>(驪州 1억m<sup>3</sup> 波州 6천만m<sup>3</sup>)도 現在의 年間 平均消費量 1천500만m<sup>3</sup> 씩이 繼續 供給되면 오는 92년未까지 바닥날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骨材供給價格面에서도 洋沙地區의 骨材는 서울과 隣接, 모래의 경우 한트럭(7m<sup>3</sup>)당 3만5천원씩에 供給되고 있으나 앞으로 採取될 여주등지의 骨材는 需要處인 서울과의 距離가 80km가량 떨어져 있어 運搬費를 包含, 5만원線을 넘을것으로 보여져 消費者負擔이 커질것이 豫想되기도 한다.

京畿도는 1餘年後에 닥칠 骨材供給難을 解消키위한 方案의 하나로 지난79년 安養시 石水동 冠岳山一帶의 돌산開發에 着手, 지난해에는 쇄석骨材 30만m<sup>3</sup>를 올해는 지난 8월未 現在 80m<sup>3</sup>를 生産, 道路鋪裝用등으로 供給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業体에서 이의 使用을 꺼려 20餘만屯의 在庫가 쌓이고있다는 것이다.

## 住宅신축許可크게低調

올들어 서울의 住居用建築物 新

# 建築界뉴스

築事業이 繼續沈滯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市에 의하면 올들어 8월末 現在 아파트등 住居用建築物 新築事業承認實績은 모두 2만 4천615 家口로 最近 몇년사이 最低水準을 記錄했던 지난해의 같은期間 2만 8천 426家口에 比해서도 87%線에 머물고 있는 實情이다.

이를 形態別로 보면 民營과 市營 및 住公아파트를 包含한 아파트許可件數가 1만 3천330만 家口分이고 民間人이 짓는 聯立住宅도 6천832家口分, 單獨住宅이 4천 453家口分으로 돼있는데 지난해同期에 比해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 던기·베이스入札止場 촉구

邊康雨「建協」서울市支部長은 『建設業界가 어려운 局面에 處해 있는 이때 政府가 大型住宅工事を 「던기·베이스」또는 代案 入札등으로 發住하고 있어 中小建設業界의 經營難이 더욱 加重되고 있다』고 指摘, 『政府는 이같은 入札方式을 止揚, 中小建設業者도 大企業과 共同으로 參與할 수 있도록 許可해줄것』을 促求했다.

邊支部長은 지난 7일저녁 6시부터 8시30분까지 코리아나 호텔 22층 스테이트 룸에서 開催된 서울支部所屬 代議員·幹事 連席懇談會에서 人事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明年에는 教育稅가 新設되고 福祉國家建設을 위한 150만戶住宅 建設計劃이 마련된 만큼 住宅 및 學校建設에 中小建設業者의 參與幅을 더욱 擴大해주고, 特히 88年度 올림픽施設工事業에는 國內 建設業者만 參與시켜줄것』을 当局에 要望했다.

이어 邊支部長은 『建設業이야말로 科學적이고 合理的인 産業임에도 不拘하고 社會一角에서는 如前히 建設業을 賤視하고 있다』고 指摘, 『建設業界가 合心團結하여 이와같이 그릇된 認識을 바로 잡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 無許可 건물 철거전면중단

서울市는 政府의 無許可建物 陽性化方針에 따라 이날부터 無許可建物撤去를 全面中斷키로했다.

市의 이같은 方針은 겨울철을 앞두고 無許可建物住民들의 生活을 安定시키고 政府가 9월 定期国会에 提出키로한 「竣工未畢既存建物 整理에 関한 特別措置法 改正案」이 確定될때까지 現狀을 保存, 陽性化對象과 範圍를 確定하기 爲한 것이다.

現在 서울市內에는 總15만 4천여 채의 無許可建物이 道路·公園用地·河川敷地등 國公有地와 私유地를 占有하고 있다.

市는 이들 無許可建物에 대해 지금까지 全面撤去再開發爲主行政에서 一部 改良해서 使用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保存 陽性화한다는 政府의 方針이지만 6월 確定됨에 따라 그동안 一部 都市計劃 抵触區域 및 工事區間에 있는 無許可建物을 除外하고는 事實上 撤去를 中斷해 왔다.

## 태양열시설 자금 대폭支援

政府는 産業部分의 太陽熱 利用을 促進하기 爲해 太陽熱集熱器 50m<sup>2</sup> 以上 設置하는 事業場에 施設資金 융자 및 稅制 支援을 하기로 했다.

動資部와 에너지管理公團에 의하면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에서 融資되는 太陽熱施設資金은 融資對象이 太陽熱集熱器 50m<sup>2</sup> 以上을 設置하고자하는 事業者로 公團의 推薦을 받은 者이며 融資範圍는 生産業體의 경우 施設費 및 人件費, 그리고 集熱器設置者는 太陽熱施設에 必要한 資金의 90%이다.

이 資金은 償還期間이 3년 據置 5년으로 融資金利는 3년까지 15%, 3년超過 8년까지 16%이며 이같은 太陽熱施設投資에는 地方稅

및 取得稅·財産稅가 免除되고 法人稅에서 8~10%控除 또는 特別減價償却範圍額의 100%중 選擇의 으로 支援惠沢이 주어진다. 現在 太陽熱利用現況을 보면 住宅部門에서는 漸次 利用度가 높아지고있으나 産業體는 低調한 實情이다.

## 建設 새 需要 5천억 예상

민간업체는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오는 88년까지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 1조원, 건설부문에 5천억 원등의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기술 및 신제품개발, 유망품목의 量産體制확립을 위한 장기투자전략을 서두르고 있으며 식품및 자동판매기업계도 판매급증에 대비, 제품개발에 나설계획이다.

재계에 따르면 컬러TV보급률이 현재의 20%에서 오는 88년까지는 80%, VTR VDP비디오관련제품은 1%에서 10%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金星社등 가전메이커들은이같은 내수급증을 기반으로 우리전자제품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대규모시설투자 및 신제품개발과 품질고급화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다.

통신분야의 경우 통신수용량을 크게 증가시켜주는 光纖維 케이블의 실용화를 오는 83년까지 달성하기위해 金星電線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현재 제 5차실용화시험에 돌입하는 등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光通信端局장치 개발도 당초보다 2~3년 앞당겨 83년까지 실용화될 전망이다.

또한 올림픽개최로 국제통신시설의 대폭 확장에 따른 테렉스량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전자식 텔레프린터 팩시밀리등이 82년 까지 개발될 예정이고 인공위성을통해 중계할 수 있는 장거리 무선통신설비도 업체가 체신부의 계획에 따라 현재의 7백64회선에서 3천

회선으로 증가시킬 생산능력을 갖출 방침이다.

업체는 이같은 전기 전자 통신 설비확대로 인해 반도체와 컴퓨터 분야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를 계기로 반도체기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컴퓨터 터미널(CRT) 및 중앙제어장치(CPU)의 국산화등 야심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건설업체는 올림픽경기시설건설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의의를 두고 시설건축시 건축공법상의 새로운 기법도입등에 주력, 올림픽대회를 건축공법상의 질적인 개선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 아파트값 自律化계속

정부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는한 아파트값을 스스로 정하도록 自律에 맡기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건설업자들로부터 받고있는 공공용지 무상증여를 규제, 아파트값 상승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李圭孝건설부차관은 아파트건설업자들이 常識線을 훨씬 뛰어넘어 폭리를 취하거나 無住宅국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경우 정부가 당연히 지도와 단속에 나서겠지만 상식선을 지킬 때는 간섭없이 업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하실 베란다등 불필요한 공간을 넓힘으로써 아파트값을

비싸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승인때 설계심사에서 감리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李차관은 또한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아파트건설업자들로부터 학교부지등 공공용지를 기부받고 있는것을 규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접적으로 아파트값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아파트 건설업자들의 25명이하 서민용 건설은 기업의 사회적윤리측면에서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李차관이 정부의 아파트가격 자율화방침을 밝힌것은 지난번 韓信工營아파트폭리사건으로 침체돼있는 민간아파트 건설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아파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체육공원 크게 擴充키로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할수 있도록 체육공원 및 야영장 등산로 자연공원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漢江을 비롯한 中浪川변등의 폐천부지와 서울근교산을 비롯 ▲龍門山 ▲天馬山 ▲鐵馬山▲禮峰山 ▲蘇利峰등가까운 경기도지역산에 대한 입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또 지난 4월착공한 蠶室洞 漢江고수부지 체육공원 2만 1천평을 이달말까지 완공, 개방하기로 했는데 3억 1천만원의 예산

이 투입된 이·공원은 축구장 2개, 야구장 1개, 배구장 3개,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에 개발될 고수부지 체육공원은 ▲汝矣島 샛강 24만평 ▲安養川변의 高尺洞-楊花橋사이 14만평 ▲千戶大橋-蠶室대교사이의 蠶室쪽 4만평 ▲中浪川변 5만평등 47만여평으로 모두 개발하는데 약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올겨울부터 漢江하상등에 대대위 간이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무료로 개방, 어린이들이 얼음을 지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당국자는 『7년후의 올림픽에 참가할주역들을 국민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들이므로 이들이골목을 벗어나 자연속에서 맘껏 뛰어놀수 있도록 하는게 서울시의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汝矣島 10만평 ▲第3 漢江橋 남쪽 2만 5천평 ▲蠶室 2洞 2만 1천평등 모두 7개소에 23만 5천평의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또 ▲北漢山 ▲道峰山 ▲水落山 ▲佛岩山 ▲龍馬山 ▲大母山 ▲清溪山 ▲冠岳山등 8개근교산에 4억 8천여만원울 들여 46개소의 야영장을 설치하고 1백40km의 등산로를 정비, 청소년들이 자연과 벗하고 인격을 순화할 수 양의 장소로 개방했다.